

광주 디자인 경쟁력 통했다… 굿디자인 3건 선정

오른디자인·수다도자기 찻잔 세트 ‘한음채’ 등
디자인진흥원 지원 울더타임 ‘CES혁신상’ 쾌거

광주지역 기업들의 디자인 경쟁력이 국내·외에서 잇따라 호평을 받고 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지역 기업이 출품한 3개 제품이 ‘2025 우수디자인(GD)’ 상품에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우수디자인(GD) 제도는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인증 제도로, 산업디자인진흥법(제6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에 정부 인증인 GD(Good Design) 마크를 부여한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

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외 공모전 출품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오른디자인(대표 송현승)이 디자인한 수다도자기(대표 이영순)의 찻잔 세트 ‘한음채’ △블랑스톤(대표 이경훈)의 자석형 트리샤 스푼·포크 세트 △킨더르(대표 박주희)의 프리미엄 모듈형 놀이기구 ‘라라브릭’ 등 3개 제품이 2025 GD 상품에 선정됐다.

특히 오른디자인과 수다도자기가 협업한 ‘한음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도 함께 수상하며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GD 시상식과 수상작 전시는 오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디자

인코리아 2025’에서 진행된다.

해외에서도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의 CES 출품 지원을 받은 ㈜울더타임(대표 조상은)은 AI 기반 여성 등 안전 예방·대응 플랫폼 ‘더가이드(The Guide)’로 ‘2026 CES 혁신상(CES 2026 Innovation Awards)’에서 ‘Human Security for All(모두를 위한 인간보호)’ 부문 혁신상을 수상했다. 울더타입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 참가해 글로벌 시장에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김용모 원장은 “대한민국 GD 및 CES 혁신상 수상을 계기로 지역 기업이 가진 경쟁력이 실질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울더타임의 ‘더가이드’

미터링 기반 배전망 운영 고도화
한전KDN, 한전과 공동연구 협약

한전KDN은 최근 한국전력과 ‘미터링 기반 실시간 배전망 품질 계측 및 운영 고도화 솔루션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배전망에 연계된 전력의 품질과 실시간 계측 정보를 분산 서버 실행(엣지 컴퓨팅)으로 배전망 운영관리 시스템에 제공하는 게 핵심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뤄졌다.

양 기관은 배전자동화시스템(ADMS)을 개선해 고압 구간의 ADMS와 저압의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데이터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배전망 전체를 하나의 통합망처럼 운영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또 공동연구를 통해 전국 2000만호 이상에 설치된 AMI를 단순한 계량기능을 넘어 전력망 전 구간을 실시간 감시·제어하는 지능형 인프라의 핵심 센서로 발전시킨다.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은 △SMDP 설계·개발을 통한 실시간 데이터 가시성 확보 △배전망 감시·운영 효율화(FTM) 서비스 개발 △스마트미터링 기반 응용 서비스 실증을 통한 현장 검증 등 총 3단계로 드림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NH농협은행 전남본부는 12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아동 교육문화 지원을 위한 ‘어린이잡지’ 기증 8400부(35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농협은행 전남본부, 어린이잡지 기증

도교육청에 7년 연속…“미래 인재 독서문화 확산 기대”

NH농협은행 전남본부는 12일 전남도교육청에 아동 교육문화 지원을 위한 ‘어린이잡지’ 잡지 8400부(35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 어린이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창의력 향상을 돕기 위한 농협은행의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7년째 이어가고 있다.

기탁식에는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류종필 NH농협은행 전남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역 학생들이 좀 더 풍요로운 독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어린이잡지’는 폭넓은 학습 정보와 재

미있는 읽을거리로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대표 어린이 교양월간지다. 특히 과학, 환경, 문학, 시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통해 전남 지역 학생들의 사고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류종필 농협은행 전남본부장은 “어린이잡지 구독을 통해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춰 세상을 배우고 꿈을 키워가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며 “전남의 미래 인재들의 독서문화 확산을 기대하며 다양한 교육지원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방위산업, 광주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

시, K-방산 혁신포럼
4개 기관과 업무협약
인공지능·모빌리티 등
전략산업 확산 ‘모색’

광주시가 방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광주시는 12일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통관에서 ‘K-방산 광주혁신포럼’을 열고, 지역 인공지능(AI)·레이저·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 역량을 활용해 방위산업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광주시가 주최하고 GIST와 광주테크노파크가 공동 주관했으며, 지역 방산기업과 유관기관,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방위산업은 인공지능(AI), 반도체와 함께 국가가 집중 육성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꼽힌다. 최근 레이저·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산혁신클러스터 확대, 부품 국산화·공동 연구개발 지원, 해외 수출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김영로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가운데)이 12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열린 ‘K-방산 광주혁신포럼’에서 광주과학기술원, 광주테크노파크, 한국광기술원, 광주미래저도모빌리티진흥원 등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추진하고 있다. 기술 기반을 갖춘 지자체에는 방위산업 참여 기회도 우선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러한 정책 흐름에 발맞춰 지역의 기술·산업 기반을 방위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포럼을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광주 방위산업 육성 방향(광주테크노파크)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방위사업청) △고출력 레이저 방산 적용 방안(LIG넥스원) 등 관련 기관의 정책과 기술이 소개

됐다. 이어 육군 전투심층 프로그램 소개, 지상 MRO(유지·보수·운영) 참여 방안 논의, 국방반도체 기술 토론회 등 지역 기업의 방산 시장 진입 가능성을 점검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특히 광주시는 광주과학기술원, 광주테크노파크, 한국광기술원, 광주미래저도모빌리티진흥원 등 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 개발부터 실증, 기업 지원, 사업화까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전 과정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 워터린사취수솔루션은 이렇게 다릅니다

- 초미세녹물까지 차단하는 고성능필터
- 사취후 잔류하는 잔수를 자동배출
- 휴대용, 여행용 대응형 필터유닛
- 자유로운 수압조절 및 절수기능

동행 지역소상공인

광남일보

Water linn

보다 더 나은 다름

워터린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의 물처럼
당신의 일상에 깨끗하게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곡로 399-18, (주)지엔비솔루션 · 전화 : 062-716-0999 / 팩스 : 062-716-0998 · 메일 : water-linn@naver.com